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서울교회설립27주년을 기념하면서

꿈같은 은혜에 감사하라

가슴치며 통곡하며 짐승처럼 끌려가던 한많은 포로 길을 이스라엘 포로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돌아왔다. 70년만인 포로의 본토 귀환이라니 할 수도 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이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년전 바벨론으로 팔려간 것은 전적으로 이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오늘의 귀환을 이들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렇다고 이들의 귀환을 조국의 공적이라 할 수도 없다. 이미 오래전 패망한 이들에게는 귀환시킬 정부도 조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귀환이 바벨론의 은덕이 아닌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大事)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고 이들 모두는 물론 열방들도 입을 모아 축하한다. 여기 귀환민의 기쁨은 단순히 귀환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의 감사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기인한 것이어야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가 된다.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최우선적 기도 제목은 포로의 본토 귀환 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귀환민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마저 이제 빠른 시일내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해서 그들에게 만사가 대통하리라는 성급한 기대도 말아야 하지만 경솔한 절망도 피해야 한다.

울면서 발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70년전 울면서 떠났던 길을 웃으면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언젠가 웃으면서 노래하며 추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로 개척자다운 위대한 신념이다. 감사는 구원에 기인해야 되고, 영광은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한다는 것을 기독교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원로목사 이 중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말씀요약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11월 19일 (월)
서로 덮어줍시다(창 9:18-29)
이정환 목사

신앙의 연륜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몰로 심판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창 6장)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행위로는 절대로 방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갔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이토록 덮어주셨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합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감은 나를 구원해주시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명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치를 배가시키는 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가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20일 (화)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고후 2:14-17)
이정환 목사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제물도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을지라도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 착한 빛을 사람들에게 비쳐 사 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17번이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러진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경 이야기보다는 먼저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면 이 향기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 아름다운 냄새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삼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있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엄청난 게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므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 위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11월 21일 (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눅 14:25-27)
이정환 목사

세상의 어떤 힘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형제는 물론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26절)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주님은 비로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몹시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가족과 자녀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가 편할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성도의 자세일까요?

서울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아 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은교회 회복을 위해 모두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목)
하나님의 자녀(요 1:12-13)
김동호 목사**

저는 2001년 10월 나이 50세가 넘어 「높은뜻송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저에게는 좋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 최고의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 것이 평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목사로 만나는 교인이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13-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높은뜻송의교회」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되 신앙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2년 동안 직분을 임명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교인들이 은혜만 받기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6년에 한 번씩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 받고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 또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사탄은 충성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충성은 수고를 하게 하고 교회에 애착을 가지다가 나중에 그 충성이 주인 됨으로 바뀝니다.

「높은뜻송의교회」는 2009년 1월에 4개의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60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 교회는 말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울교회가 지금 분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해결됐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끝난 후에 서울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제대로 되면,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지금 서울교회에 필요한 것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어떤 분쟁도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열리지 않는 문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서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1월 23일(금)
주님의 제자(눅 5:1-11)
김동호 목사**

우리가 여기에 사명자대회로 모였는데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또 권세와 권능과 재능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쓰시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뽑아 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면을 보시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의 충성심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능력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부가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내리고도 고

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도 밤새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의 성실함과 끈질김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사람이 충성하기는 쉬워도 겸손하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자기 직업이 어부였지만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로 이런 모습, 곧 충성하면서 고집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공신이 역적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역적은 다 공신 출신입니다. 사실 공신이 아니면 역적이 될 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의 어려움이 해결된 후의 일입니다. 어쩌면 회복된 후에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조직이나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회복되고 나면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하거나 주인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랍비로 칭하다가 나중에 주로 칭합니다.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할 일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고집부리지 않는 사람,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러한 사명자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은 하나님 앞에서 은사와 재능과 권세와 권능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 허 숙 권사(편집부)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6일째 말씀은 다음 주에 실습니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영적 특식을 맛본 특별새벽기도회!

정병무 장로 (은퇴장로, 12교구)

금년 "사명자 대회"는 어느 해 보다 자못 다른 특식으로 먹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일간 이정환 목사님의 진솔한 목회현장을 떠올려보며 진정 소명 받은 목사상을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내 모습을 한 번쯤 말씀 위에 투영해 보아야 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니 감성의 눈물샘이 넘쳐남을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금의 안타까운 한국 기독교계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 땅 위에 부단히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줌의 소금이 되어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다 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머리를 숙일 수 밖에 없었고 존경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았습니다.

네째 날부터 3일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김동호 목사님은 첫째 날부터 "주인론"으로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자신의 실제 목회경험을 예화로 인용하여 우리들의 피부에 착 달라붙는 감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누구나 다 외쳐 대지만 실제 행위로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거저되고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 당장 눈앞에 놓인 위기를 주인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나 논리로 기울어지는 것을 한 발 물러서서 말씀의 잣대로 재어보아야 한다. 주인은 자신의 뜻이라면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결단코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다섯 째 날은 우리가 편하게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회가 지금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진정 사명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짚어주시며 사명자는 '소명을 받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으나 어딘가 부담감을 주어 책임의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달갑지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충성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충성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부 베드로를 택할 때 그의 무능을 질책이나 추궁하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전력투구하는 굳은 의지의 속사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쓰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의 첫 걸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은 그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덧붙여 주시어 영광돌리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벽과 걸림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어려움에 처한 서울교회에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병욱·조혜영·박중환 이준호3·이은희7 서윤영 최인애 정복순 장호림 손태현·박혜옥 신아령 한대석 안흥희·전화진 박광식·박현영 장장수·박혜정 리브가여전도회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19 신임 서리집사 면접

오늘 오후 2시, 104호

2019 신임 서리집사 면접이 11월 25일(주) 오후 2시, 104호에서 열린다. 신임 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은 면접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여 받으면 된다. 신임 서리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 바란다.

추수감사절 특별찬양



오광환 장로(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래 죄 중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
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어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이
기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받
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
케 하실 여호와 앞에 더 큰 감사로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아 임
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
의 축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
님의 위로와 축복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차
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018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성경말씀 암송하는 것을 생활화

임대중 집사 (12교구)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
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말씀
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전교인 성경암
송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쳐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갓을 에워싸는 늦가를 토요일
오후 성경암송대회를 위해 교회에 모인 유아·유
치부와 유초등부·중고등부, 사랑부, 일반부에 이
르기까지 교회 이곳저곳에 모여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보시기에 참 좋았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아
이들만 시키지 말고 온 가족이 한번 해보자고 해
서 요즘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어디에 주차해
두었는지도 자주 잊어버리는 나이에 나만 빼
고 하면 어떻게? 라고도 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해
내야 한다는 아내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다섯명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파트를 나누고 각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출퇴근 하는 지하철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집안 여기저기서 암송하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점점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
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외워 진다고 울기도 했던 막내의
입에서 하박국 3장의 말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살
아나왔으며 아이들과 온 가족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유아부부터 장년부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고 말
씀에 힘입어 서울교회의 힘든 상황도 낙담하지 않
고 잘 헤쳐 나갈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
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년시기에 성경말씀 암송하는 것을 생
활화 하다보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함께하는 가족들
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부
모님들과 서울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
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27주년 축하

초대

신통기 권사 (시인, 12교구)

하늘의 하늘까지
그 피로 열어가시는
엄위하신 당신

히디 흰 옷 소매 걷고
스물 일곱개 별을 골라
당신의 존영으로 불 붙이신다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만찬을 준비하시고
휘황한 하늘 식탁
고난의 그릇에
떨어진 눈물도 씻어
영롱한 보배로 위로하시고
오래된 인내의 금 대접에
매를 상으로
핍박을 복으로
기도의 향기로 올라가는
놀라운 승리의 기적들...

깊고 넓고 높은 당신의 몸
굵은 밧줄에 묶여
숨죽인 울음
언제까지이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뺏속 저미는 통곡으로
황홀한 새벽 바다를 이루는 서울교회여

죽은자 같으나 산자들의 합성
복음의 대동맥으로 열방과 땅 끝까지
흐르고 흘러 가라

오늘
하늘 갈채가 쏟아지는
스물 일곱번째
축제의 날
당신의 초대장에
승리!
눈물이 뺨짜인다

교회설립27주년 기념주일·추수감사절

I·II·III 예배 시 성찬식 거행 찬양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찬양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교회 설립 27주년 기념주일이다.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 오광환 장로)의 특별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주일이 되도록 기도하자.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임마누엘찬양대(대장:오광환 장로)의 추수 감사 찬양으로 드린다. 유태왕 집사의 지휘로 추수감사절 합창 "감사의 찬양(Don Wyrzten작곡)"을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집사, 피아니스트 이주희 성도,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며 곡중 솔로는 이한나, 장윤아, 장창욱, 박인화 대원이 담당하고 오광환, 김규원, 정선경, 이인영 대원이 나레이션을 맡는다.

2018 성경암송대회 은혜 중에 마치다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성경암송대회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암송범위는 하박국 전장이며 교육1국 미취학부서는 하박국 3장이었다. 예선은 11월 4일(주일), 각 부서별로 진행하였으며 본선은 11월 17일(토) 오후 1시에 진행하였다.

24개팀, 63명(중복인원제외)이 4개 파트로 참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

유아부 - 대 상 : 유하민 최무건
- 믿음상 : 한세희 - 소망상 : 최아준
- 사랑상 : 김재경

유치부 - 소망상 : 김하준 김하민 김하윤 우정서
유서연 임시우 김재운 김선후
유·초등부 - 믿음상 : 윤서진 김수아 유하연 한세아
- 소망상 : 장유정 이예은 노 윤 최시원
- 사랑상 : 김하진 이시우 오유민 오선아 김종현
- 장려상 : 박인성 우정균 이윤익 최시원 장유정
오유나 이시연 이인에 정은채 최주하
최무진 한예준 한예승 임대중 임하울
중·고등부 - 대 상 : 장하늘
- 믿음상 : 권소희 백영자 박유진 최복희 정현구
- 소망상 : 김요한 김지환 장하람 박유진 소준 정은서
- 사랑상 : 장유선 장해윤 정은지
사랑부 - 사랑상 : 최지훈
일반부 - 대상 : 김미성
- 특별상 : 임대중 집사 가정
- 믿음상 : 김진달
- 소망상 : 박유진 / 백영자 이봉선 위성남
- 사랑상 : 박혜옥 / 백도환 김미성 박혜옥

동 정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 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 26회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파티』 12. 6(목) 오후 7시 30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금주의 식사 : 잡채밥·미소된장미역국
전광영 집사 김민숙 권사 (유지엄그라운드오픈감사)
- 무우생채 : 이관모 권사 / 김치 : 이봉규 권사
- 떡 제공 : 권사회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1월25일	주일	롬 1-3		눅 5-7	
11월26일	월	롬 4-7		눅 8-10	
11월27일	화	롬 8-10		눅 11-13	
11월28일	수	롬 11-13		눅 14-18	
11월29일	목	롬 14-16		눅 19-21	
11월30일	금	고전 1-4		눅 22-24	
12월1일	토	고전 5-8		요 1-5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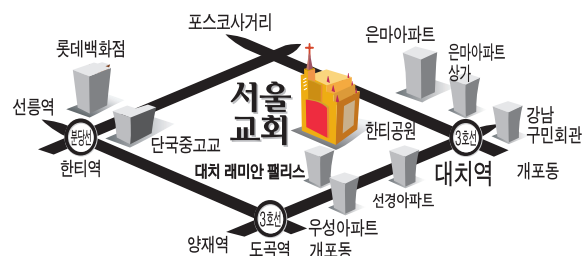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3.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